

# 종합병원 진료비 바가지 심하다

## 받지도 않은 검사비 청구 등 광주·전남 지난해 392건 적발

#사례 1. 최근 고열에 시달리던 딸(20)과 함께 광주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이모(48)씨. 응급실에서 몇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퇴원수속을 밟기 위해 수납창구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액(9만6천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 진료비 세부명세를 살펴보다 '검사료' 항목에 받지 않은 심전도와 대변검사가 포함된 것을 알아냈다. 또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청구돼 있었다.

부담청구된 금액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9천300원에 불과했지만 이씨는 "믿고 찾은 대학병원이 환자를 속인 것도 모자라, 잘못을 인정하는데도 인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측은 부담청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사례 2. 김모(여·58)씨는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과 뒷덜미가 당기는 등 극심한 두통 때문에 최근 광주시 B종합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서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를 받은 김씨는 검사비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 병원 측의 이야기만 믿고 검사비 수십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 결과, 급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다. 만약 김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병원측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금에 대한 급여비를 청구해 이중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병원의 규모만큼 사회적 책무도 큰 대형병원들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최웅찬·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광주·전남지역 종합병원(광주 19곳·전남 20곳)을 이용한 환자들이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681건에 이른다.

이중 심평원의 확인결과 실제 부담청구 사례로 인정돼 본인부담금 환불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민원건수의 58%에 해당하는 392건으로, 돌려준 금액만 1억9천6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6%(42건)에 불과했고, 환자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14%(94건), 병원과 환자 간의 합의 등으로 취하된 경우가 22%(153건)를 차지했다.

부담청구한 사례를 보면 ▲대학병원에서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하지도 않은 검사나 치료를 진료비에 포함하는 경우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검사나 치료를 비급여라고 속여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경우 등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비 과다청구 사례가 의심되면 병원에서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아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면 된다"며 "병

▲종합병원=의료비상 입원 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최소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정신과·치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원 측이 비급여라고 말한 검사나 치료도 실제로는 급여 대상일 수 있으니 심평원에 문의(1644-2000)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풍등에 소망 담아

건설노조 광주지부(지부장 김범중)는 지난 3일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노동자 고용안정과 무사고 기원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갖고 새해 소망이 담긴 풍선 200개를 날려 보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지난해 화재 인명피해 2배 급증

### 발생 건수는 23.4% ↑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가 전년도 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동부소방서가 발표한 '지난해 자체 화재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화재 발생건수는 ▲동구 183건 ▲서구 256건 ▲남구 163건 ▲북구 503건 ▲광산구 281건으로 모

두 1천711건이다.

이는 2007년 1천386건 보다 23.4%(325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63명 등 68명으로 2007년 34명(사망 7명, 부상 27명)보다 100% 증가했다.

재산피해도 지난해엔 부동산 17억 4천200만원, 동산 21억1천100만원 등 38억6천100만원으로 2007년 38억

4천900만원(부동산 17억6천300만원, 동산 20억8천500만원) 보다 0.31%(1천200만원) 늘었다.

화재 원인으로는 실화가 1천563건(91.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화 120건(7.01%) ▲미상 26건(1.52%) ▲자연적 요인 2건(0.1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방화의 경우 134건을 기록한 2007년보다 11.6%(14건) 줄었다 /이종형 기자 galee@

### 강진 방화 추정 잇단 불

강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새벽 1시20분께 강진군 신전면 김모(47)씨의 A김치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층짜리 조립식 건물 내부면적 220㎡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6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또 같은 시각 인근 김씨의 D식당(단층)에서도 불이나 건물 내부면적 132㎡를 태우고 7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박진표기자 lucky@

### 오늘 小寒...영하 추위 '이름값'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이 제대로 이름 값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한인 5일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영광·함평 등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1도로 ▲화순 영하 6도 ▲나주·곡성·구례 영하 5도 ▲고흥·보성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강진 영하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도~7도. 이는 소한 평년기온(광주의 낮 최고기온) 5.4도보다 1.4도 낮은 온도다. 이번 추위는 10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 선박 건조장 크레인 전복 대불산단 인부 2명 중상

영암 대불산단의 한 선박 건조장에서 일하던 인부 이모(52)·김모(33)씨 등 2명이 철관에 깔리면서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의 크레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골드크레인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것으로, 변을 당한 인부 모두 골드크레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크레인의 설치 작업 부적절 여부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박씨는 이화화학 선박 건조장 이동 통로에 사용할 철관을 옮기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박씨의

이동식 크레인 인근 작업장에서 일하던 인부 이모(52)·김모(33)씨 등 2명이 철관에 깔리면서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의 크레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인 골드크레인으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것으로, 변을 당한 인부 모두 골드크레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크레인의 설치 작업 부적절 여부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양수기 하룻밤새 29대 도난

광주시 남구 승촌동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하룻밤 새 양수기 수십대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오전 5시까지 광주 남구 승촌동 소재 미나리 재배농가 김모(58·나주시 노안면)씨

등 8곳에서 양수기 29대(시가 300만원 상당)가 도난당했다.

경찰은 절도범이 훔친 양수기를 고물상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고물상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하남산단 中소 사장 자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던 50대 사장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광주관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관산구 월계동 K모(58)씨의 집에서 K씨가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회사직원 이모(3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김씨는 광주시 관산구 하남산단에서 철강재를 설치·판매하는 회사 사무원 경력에 왔으며, 서울에 있는 가족과는 2년 전부터 떨어져 지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

### '수능 자료 유출' 사실상 수사 종결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중로경찰서는 4일 G입시업체 김모 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달 17일과 이날 2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조만간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해고 양심 20대, 회사 컴퓨터 훔쳐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회사 1주일 만에 회사 물건을 훔쳐다가 경찰서로

○광주관산경찰은 지난 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관산구 오선동 C씨(44·광주시 관산구 운남동)가 운영 하는 Y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2대를 훔친 김모(26·광주시 관산구 월계동)씨를 4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년 동안 근무를 해 오던 중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양심을 품고, 평소 가지고 있던 회사 열쇠로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2대를 훔쳐 나온 혐의.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회사 납품품목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쳐내 나름대로 양심유려 했다"면서도 "훔친 컴퓨터자료 등은 모두 이상 없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주) 리첸

RITCHEN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251-2222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제주도 여행 패키지

제주도 여행 패키지

064-744-1109